

7월 26일(금) 15:30
부산은행 SUM Incubator 개소식
(부산 서면 주디스 태화 본관 9층)

「부산은행 SUM Incubator 개소식」

- 祝 辭 -

2019. 7. 26.

금 융 위 원 장
최 종 구

I. 인사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입니다.

아름다운 해양수도에 등지를 튼,
부산은행의 썸 인큐베이터(SUM Incubator)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방은행 최초의 창업지원 플랫폼으로서,
지역경제와 지역금융이 함께 성장을 시작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설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김지완 BNK금융그룹 회장님과
오늘 개소식을 위해 수고해주신
BNK부산은행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치열한 경쟁을 거쳐
썸 인큐베이터에 입주하게 된
13개 부산창업기업 대표 여러분!
여러분의 힘찬 첫걸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II. BNK 부산은행의 창업활성화 노력

최근 BNK부산은행은
‘리디자인 뱅킹(Redesign Banking), 은행업의 재설계’를 모토로
고객, 지역, 디지털 중심의 혁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에는
은행장 직속의 혁신금융추진 TF를 신설하였고,
스타트업, 투자, 대출 등 3가지 차원에서
부산의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술금융 선도은행*으로서
‘기특론(기술금융 특별우대 지원대출)’을 출시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 은행권 기술금융실적평가(TECH평가)시 소형은행리그 최다1위 기록(5회)

지역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창업기업에 200억원 이상,
스케일업 기업에 1,350억원을 신규투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BNK부산은행의 혁신금융 추진의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결과물이
바로 썸 인큐베이터라 생각합니다.

썸 인큐베이터(SUM Incubator*)에는 그 이름에서 보여지듯이,
사업 공간, 자금 조달, 그리고 컨설팅 등
창업기업이 원하는 부분을 “Matching”하여 해결하고
글로벌 기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부산은행의 강력한 의지와 열망이 담겨있습니다.

* SUM Incubator : Start-Up Matching Incubator

아무쪼록 부산은행의 썸 인큐베이터가
부산의 창업열기확산에 성공적으로 기여하고
부산지역 창업생태계의 든든한 중심이 되어주시길 기대합니다.

Ⅲ. 정부의 창업지원 노력

정부도 창업생태계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를 국정과제로 삼고
정책역량을 집중해왔습니다.

① 두려움 없는 창업과 제도전을 위해 연대보증을 폐지하였고,

* 공공기관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 실적('18.4월~'19.5월, 신·기보) :
신규·증액 13.6조원, 기존 연대보증 감축 8.4조원

**②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3년간 8조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를 조성해나가고 있으며**

* 성장지원펀드 투자실적('19.6월말 기준) : 74개사, 5,310억원
성장지원펀드 투자규모 : 평균 72억원, 기업당 4억원~595억원

**③ 동산금융, 기술금융과 같이*
성장성이 있다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선진적 기업금융 관행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 동산담보대출 잔액(억원) : ('18.3월말) 2,066 → ('19.6월말) 6,613
기술신용대출 잔액(조원) : ('18.3월말) 139.2 → ('19.6월말) 185.3

**④ 최근에는 금융과 창업기업의 긴밀한 연결을 위해
마포혁신타운(Front One), IBK 창공 등
대규모 창업지원 플랫폼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⑤ 이와 함께, 지난 4.1일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현재까지 4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함으로써,
핀테크와 같은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활발하게 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과 정부의 노력의 결과
그토록 염원하던 혁신창업국가의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신설법인수가 10만개를 돌파하였고,
신규 벤처투자도 사상최초로 3조 4천억원에 이르렀습니다*.

* 신설법인(만개) : ('08) 5.1 → ('13) 7.6 → ('18) 10.2

신규 벤처투자 금액(조원, 벤처캐피탈협회) : ('14) 1.6 → ('16) 2.2 → ('18) 3.4

기업가치가 10억달러가 넘는 스타트업을 지칭하는
유니콘 기업도 지난해 6월까지 3곳에 불과했지만,
1년 사이에 9곳으로 늘어났습니다**.

* 쿠팡(배송), 블루홀(게임), 옐로모바일(스타트업 연합), 우아한형제들(게임),
엘앤피코스메틱(화장품), 위메프(배송), 비바리퍼블리카(모바일결제),
야놀자(숙박), 지피클럽(화장품)

앞으로도 혁신과 창업을 지원하고
기술과 미래에 투자하는
혁신적 금융생태계 정착을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IV. 마무리말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창업인 여러분의 활기찬 얼굴속에서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는
해양수도 부산의 기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북쪽으로 유라시아의 광대한 대륙,
남쪽으로 아세안과 인도에 이르는 광활한 대양,
이 대륙과 대양을 잇는 다리가 바로 부산입니다.

세계 100개국, 500개 항만을 직접 연결하는
부산항이 세계적 물류허브로 발돋움 하였듯이,

오늘 개소하는 썸 인큐베이터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여러분들의 기상을 뒷받침해주는
선진 창업허브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부산 창업인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이 대한민국의 꿈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를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 금융위원회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용기있는 시작과
뒤따라올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